

발행일 : 2012년 2월 15일 (매월 1회 WEB 발행)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곧 1년이 되어갑니다. 후쿠시마의 지금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본 정보지의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 포르투갈어판, 타갈로그어판, 프랑스어판은 당 협회 HP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재) 자치체국제화협회 조성사업】



후쿠시마의 풍경



춘절을 맞이하여
(후쿠시마시 2012.1.22 촬영)

후쿠시마시와 다테시에 살고있는 중국출신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중국의 설날인 "춘절"을 축하하였습니다. 물만두를 먹고 연극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노보드
(이나와시로초 2012.2.5촬영)

현내에는 약 20개의 스키장이 있습니다. 현내외로부터 많은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스노보드와 스키를 타며 다양한 코스와 질 좋은 가랑눈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시노부산잔 아키마이리 축제
(후쿠시마시 2012.2.10 촬영)

오곡풍작과 가내안전을 기원하며 시노부야마의 하구로신사에 커다란 짚신을 봉납하는 것으로 약 300년전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일본에서 가장 큰 짚신을 짊어지고 신사로 향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목소리

메구로 아카네(이와키시거주 여성)

저는 후쿠시마 공업고등전문학교 3학년입니다. 지진 후에는 방사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교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반 학생 몇 명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 매우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해를 계기로 제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이 따분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번 재해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사토 준 (후쿠시마시거주 남성)

저는 지금 후쿠시마대학 2학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봄방학이기도 하여 고향인 사이타마현에 일시적으로 피난을 했다가 5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돌아왔습니다. 지진을 계기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바람에 좀처럼 진전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적 없었던 후쿠시마를 위해 뭔가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국대학의 학생들과 이 지역 기업인들과 협력하여 재해부흥을 기원하며 고오리야마에서 후쿠시마까지 가는 다스키레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랄 아하마드 (후쿠시마시거주 이집트출신남성)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먼저 후쿠시마에 가 있었던 아내에게 바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후쿠시마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후쿠시마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원전사고에 관한 것만 보도가 되어 나쁜 부분에 관한 정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취미인 사진을 통해 현재의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인터넷상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얀 꽃잎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동하였습니다. 이 눈 사진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http://bit.ly/A9e8jX>

나가타 리세 (이와키시거주 통가출신여성)

지진발생 후 한달 간은 혼자서 생활하시는 이웃 노인분들을 돌보거나 다른 현에 사는 통가인들의 협력을 얻어 피난소에서 밥을 지어 제공하기도 하며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 때문에 혼자 통가에 부임해 있는 남편으로부터 빨리 피난하라는 연락이 몇번이나 왔었지만 신세를 지고 있는 이웃분들, 영어회화 교실의 학생들,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모두를 두고 저만 통가로 피난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부터 영어회화서클도 다시 시작하여 지금은 완전히 지진 전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후쿠시마에서 산지 35년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제 고향입니다.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해가고자 합니다.